

### ‘아문화정보원 준비관’ 27일 개관

아시아 문화자원 축적, 전시·체험·열람 등 방법 개발

2014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운영을 준비하는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이하 준비관)이 27일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D빌딩 3·4층에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이번에 개관하는 준비관은 문화자원을 운영·관리하는 아시아 각국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운영체계를 실험·구축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준비관은 2개층 871㎡(약 264평) 규모로 구축했으며 문화자원 보존·관리 공간, 문화자원 체험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곳 문화자원 체험 공간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집한 사진, 음악, 영상, 스토리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자원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아시아 문화자원에 관심을 둔 전문가와 일반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고자 운영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준비관 개관행사는 그동안 한국·중앙아시아 신화·설화 협력사업을 벌여온 키르吉斯스탄의 누를란 베크 사키예프 문화정보부 장관이 특별히 참석한다.

준비관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은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cct.go.kr)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된다. 문의 062-234-10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5·18 소재 블랙코미디 ‘짬뽕’ 광주공연 (27~29일)

### ‘오월’ 아픔 담은 웃음 한그릇

5월 광주를 다룬 작품들은 항상 다소 무겁다. 특히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그 주제에 놀러 예술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드러내왔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초연된 연극 ‘짬뽕’은 그런 점에서 한번쯤 돌아볼 만한 작품이다.

‘5·18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다소 발칙한 상상을 토대로 전개되는 ‘짬뽕’은 웃음과 해학 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서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진한 감동을 전해준 ‘짬뽕’은 지금까지 10만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다녀갔고 해마다 5월이면 서울에서 공연되는 고정 레퍼토리가 됐다. 올해 역시 오는 6월16일까지 신촌 더스태이지 극장에서 공연중이다.

5월 문화 행사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시점, 연극 ‘짬뽕’을 광주에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극단 ‘행복한 사람들’이 광주급남공원에 위치한 공연 일반지에서 ‘짬뽕’을 공연한다. 27일 오후 8시, 28~29일 오후 4시·7시30분.

‘짬뽕’의 배경은 1980년 5월 17일 저녁, 다음날 함께 소풍갈 생각으로 들떠 있는 중국집 총래원이다. 늦은 밤 주문 전화가 오자 약삭같이 돈을 벌러는 주인 신작로는 일을 끝내고 고고장에 놀러가려던 만삭에게 탕수육과 짬뽕을 배달하라고 시킨다. 배달을 나간 만삭을 검문하던 두 명의 군인은 만삭에게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자신을에게 달라고 하고, 만삭은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육신각신한다. 몸싸움중 일병이 철가방에 부딪혀 머리를 다치고 만삭이 던진 철가방

에 놀란 일병이 총을 발사하자 만삭은 식당으로 쫓겨나고, 이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유쾌한 웃음 속에 펼쳐지며, 그 후 전해지는 진한 감동이 웃음을 시큰하게 하는 작품이다.

김은광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주인공 신작로 역에는 표정화·장성현씨가 출연하며 김진희·정태석·고그린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사랑티켓을 활용하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 가능) 극단 카페(http://cafe.daum.net/happyactor)를 통해 예약하면 3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10-8310-01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무용단 창작발레 ‘오월의 빛’ 무대에 (27~28일)

### 희망의 빛으로 되살아나라

광주시립무용단도 27일(오후 7시30분), 28일(오후 5시) 5월 광주를 다룬 창작 발레 ‘오월의 빛’을 무대에 올린다.

‘오월의 빛’은 남도 고유의 예술적 전통을 모티브로 한 서사 발레극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메카인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와 미래에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중 수교 19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또 중국 황주 시 가무극원 단원들의 특별 무대도 마련돼 있다. 중국황주가무단은 군무 ‘좋은날’, 2인무 ‘연우단고’ 등 6개의 작품을 공연한다.

그밖에 정음성 선생이 작곡한 중국 오페라 망부운(望夫雲)을 소재로 한 동명의 창작발레 작품도

선보인다.

오페라 ‘망부운’은 중국 운남성 대리 지역의 구전 설화를 오페라로 제작한 것으로 지배층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아형공주 등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티켓 가격 3만원 ~ 1만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낙화’가 전해주는 잔잔한 감동

장창의 개인전, 27일~6월 9일 여수 북촌갤러리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장창의씨가 27일~6월9일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북촌갤러리에서 ‘낙화’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룻꽃 꽃잎이’진다는 이병기의 시 ‘낙화’를 떠올리게 하는 꽃의 향연을 선사한다.

그의 그림 속 지는 꽃은 매양 슬프지만은 않다. 화면을 압도하는 화려한 색과 한껏 부풀리고 있는 풍성한 꽃봉오리는 낙화가 전해주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해 준다.

또 수양버들 가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에서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꽃이 피고지는 생명의 순환 과정이 단절과 슬픔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다.

남농 허건 선생을 사사한 뒤 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를 나왔다. 목판화



전, 통일전, 오월미술제 등 숭한 민중미술 전시회에 참여했고, 서울 토포 하우스 개인전 등 3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1-692-09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통의 미 시와 그림으로

오대교씨 첫 시집 ‘옥신옥신 뉘어나보세’ 출간

조대교교 교사인 오대교(59·사진)씨가 민족적 정서를 가득 담은 첫 번째 시집 ‘옥신옥신 뉘어나 보세’(시와 사람사 펴냄)를 출간했다.

시화집 형식으로 간행된 시집은 지금은 사라졌거나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와 의·식·주 등에 배어있는 조상의 삶의 정서를 구수한 언어로 표현한 60여 편의 시를 담았다.

1~2부 남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삶, 3부는 고향의 정서, 4~5부에서는 먹을거리와 전통 민속놀이 등 5부로 나뉘 엮은 시집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시집에는 ‘강도끼장이’ ‘집방방이’ ‘군밧질’ ‘도랑주’ 등 이름다운 우리 옛말을 되살리고 있어 시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함평 출생인 오씨는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계간 ‘시와사람’으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다.

출간 기념회는 27일 오후 7시 광주시 지산동 ‘석촌’에서 열린다. 문의 062-224-531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농악보존회 29일 ‘웃다리 가락의 신명’ 공연

광주농악보존회(회장 이대후)가 준비한 제16회 정기공연 ‘웃다리 가락의 신명’이 29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경기 광지원 시립농악단을 초청해 경기 웃다리농악으로 신명난 한관 놀이를 펼친다. 쇠가락 중심의 경기 웃다리농악은 가락이 빠

르고 힘이 있으며 맏고 굿음이 분명한 것이 특징으로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를 보여주는 풍물놀이이다.

이밖에 광주농악보존회는 길놀이와 고사창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마당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062-252-100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천사들의 편지 여덟번째

조세현 입양아 위한 사진전, 광주롯데갤러리

올해도 8회째를 맞은 입양아를 위한 ‘사랑의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지부장 김재영)는 다음달 3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사진작가 조세현이 함께하는 사랑의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 8th - 행복’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입양을 기다리는 영아들과 이병현·김희애·이승기·장근석·김정은·한효주·이민정·김욱민·유지태·윤시윤·배종옥·박경림·김민준·왕지혜씨

등을 모델로 촬영한 입양문화 캠페인의 일종이다.

더욱이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미혼양육모와 국내입양가족들의 사진들도 포함돼 있다. 전시회장에서는 스타들과 아기의 사진이 담겨있는 팸플렛과 다이어리를 제공하며 후원금도 모금한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대한사회복지회 강당에서는 ‘입양 이해하기 세미나’를 진행한다. 문의 062-222-9349.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moviehelic

한도사랑 영화시터 콜롬버스시네마

1관	씨니 (15세)
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4관	쿵푸팬더2 (전세)
5관	씨니 (15세)
6관	내부 수리중
7관	내부 수리중
8관	내부 수리중
9관	내부 수리중
10관	내부 수리중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 MEGABOX

M관	쿵푸팬더2 (전세) 최고급관
2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3관	씨니 (15세)
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쿵푸팬더2 (전세)
6관	헤드 (18세)
7관	소스코드 (12세) / 캐리비안의해적 (12세)
8관	씨니 (15세)
9관	쿵푸팬더2 (전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CINUS

1관	쿵푸팬더2 (전세)
2관	쿵푸팬더2 (전세)
3관	씨니 (15세) / 헤드 (18세)
4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5관	씨니 (15세)
6관	삼국지 (15세)
7관	회초리 (12세)
8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9관	캐리비안의해적- 낫선조류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